

관계기관 간 소통과 협업으로 지역민 안전 지킨다

- 전주기상지청, 2023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협의회 개최
- 여름철 자연재난 최소화를 위한 기관별 방재대책 발표 및 협력방안 논의

전주기상지청(지청장 이용섭)은 5월 24일(수),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('23. 5. 15.~10. 15.) 동안 신속한 기상정보의 전달과 방재 관계기관 간 효율적인 재해 대응을 위해 「2023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협의회」를 개최하였다.

전라북도, 전북지방환경청 등 17개 기관 4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협의회에서 전주기상지청은 '23년 여름철 방재기상대책과 '23년 여름철 기상전망을 발표하였다. 또한, 방재·교육·물·도로·소방·산림·해양 7개 분야별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기관별 여름철 방재 대책과 대응체계를 공유하고 전라북도 지역의 기상재해 최소화를 위한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였다.

이용섭 전주기상지청장은 “여름철 폭염, 집중호우 등 위험기상으로부터 전북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여름철 방재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” 라고 밝혔다.

※ 붙임 2023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협의회 사진

담당 부서	전주기상지청 관측예보과	책임자	과 장	김형국 (063-249-3202)
		담당자	사무관	우남철 (063-249-3246)

